

사설

출가정신 회복하자

식다르타태자의 출가가 없었다면 불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 생각할 때 출가제도는 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출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처님의 말씀과 과거 큰 스님들의 말씀을 상기해 보자. (사십이장경)의 제42장에서는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물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같은 보배를 깨어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흰 누더기 같이 보고 삼천大千 세계는 한 알의 겨자씨 같이 본다. 열반을 조석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 경등을 하나의 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하는 일은 사철로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라고 하셨다.

경허스님은 <종노릇 하는 법>에서 "잘 먹고 잘 입기 위하여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되어 살고 죽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처되어 내 몸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 보아야 한다" 라고 하셨다.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믿고, 출가는 왜 했는지, 의심하고 탐구해 보자. 출가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

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정신, 경허스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의 의미를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맞아 마음에 되새겨 보자.

현재 우리 승가는 어떤 정신에서 수행하고 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물론 선방에서 피나는 정진을 하거나, 시중에서 포교·복지 사업에 발판을 가지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 명리에 탐닉하여 승려로서 품위를 손상, 사회의 비축을 사고 국민의 원성을 사 그 영향으로 불교 신도가 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天人)의 스승이 되어 '삼계(三界)의 대도사(大導師)가 되실 출가자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켜 흐트러진 청정승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종단은 지금부터라도 출가하는 행자, 사미(尼) 등의 승가 교육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기성승려는 불종자(佛種子)의 배양을 위해 미래의 교단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가신도도 청정승가를 존중하고 공양·공경하는 신앙 형태를 정립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재가자의 종단참여

열반 전 부처님은 출가인들에게 당신의 장래는 재가자들이 치를 것이니 오직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는 사부대중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본분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 주신 엄한 부촉이다.

물론 시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부처님의 부촉이 문자 그대로 지켜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근본 정신만은 사부대중의 구성 원리로 엄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스님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에 간여하게 되면 출가 승단의 청정성은 지켜지기 힘들게 마련이다.

출가 승단의 권위를 위해서도 출가자들에게 계속 오욕의 땅에 지우려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계종 종단은 요즈음 재가단체에서 재가자들의 종단 참여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재가자들의 역할을 사찰 운영과 종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틀을 갖추어야 사부대중 각각의 위상이 바로 서며, 출가 승단 본연의 존엄성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가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으로 재가자들은 출가 승단에 대해,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듯 자

신들이 설자리만 요구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진정한 재가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향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사찰이나 스님께 시주를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재가자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진정한 재가자들이 역할을 할 자리는 마련되지 않는다. 재가자 나름대로 재원을 모으고, 그것을 공적으로 운영하여 출가 승단의 외호 역할을 다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불사자를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출가자 뜻지 않게 재가자들도 부처님의 엄한 부촉을 저버렸다는 반성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출가 승단과 함께 불법을 받치는 기풍으로 바로 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전반적인 현실로 보아서는 아직 출가 승단의 결단이나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으로, 이미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할 수 있는 재가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이 즈음 제기되고 있는 불교산악인연합회의 종단 상하 양원 구성 제안이나 재가연대의 사찰제정 투쟁운동, 재가자의 역할 활용 제안 등을 적극 수용하여 현실적인 제도적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문자의 死句 의지한 알음알이 표면적 폐단만 보고 진리왜곡

특별기고 김용옥씨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를 반박함

EBS TV '노자와 21세기' 강의를 통해 동양학 열기를 불러일으킨 김용옥씨의 불교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변상섭씨가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를 통해 김용옥씨의 불교관을 조목조목 짚어 잘못을 지적한 데(본지 260호 7면) 이어 서울북촌동 임제선원장 종성스님이 김씨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에서 밝힌 불교관을 비판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종성스님의 글을 게재하며 김용옥씨는 물론 독자들의 의견이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도올 김용옥씨(이하 '씨'로 약칭함)는 그의 저서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에서 우리 불교 집안 문제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리만치 특유의 침구약담과 안하무인격의 언사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한 비판이 아무리 적절하다고 해도 삼가하는 것이 있어야 할진대, 허물며 지말책(枝末的)·표면적(表面的) 폐단만을 보고서 용(容)을 불사(不辭)한다는 것은 논자의 정곡(正鵠)을 잃은 씨의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된다.

우리 선가(禪家)에서는 만 번 말하여 만 번 지당해도 한 번 침묵함만 같지 못하다 했으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도 묵번대처하는 것이 수행자의 미덕일 것이다. 그러나 북을 두드려 울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외담되게 생각하는 바이다.

김씨의 <나는 불교를...>의 내용이 어디까지나 퇴옹(退翁) 성철(性徹) 큰스님의 선법문(禪法門)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 선교(禪敎)의 차이점을 말하여 간단히 씨의 선(禪)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씨의 글에 의하면 6·29 선언 이전 시국이 시끄러울 때 퇴옹 성철 큰스님의 불탄 법어가 나오게 되어, 그 법어 내용이 기필코 모자를 두둔하는 내용이라고 열도당도 않은 우김수를 부렸지만 함으로 그런 생트집은 말이 아닌 소리이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올곧고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벌나비 춤을 추니 함께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 [이 법어 이전에도 거의 이런 내용이 국·한문(國·漢文) 법어(法語)가 많이 있다]

인용한 이 법어는 만종생이 공칭(共聽)할 직지단재(直指單)의 격외조사(格外祖師)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이다. 그런데 아주 친밀한 알음알이 불교 지식으로써 큰스님의 법어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졌는지 어쩌니 하는 말들은 씨의 자신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여기서 씨의 모든 그릇됨과 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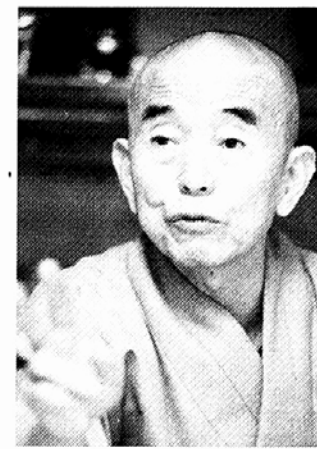
알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무릇 "교가(敎家)의 무애(無礙)의 법(法)이 바야흐로 일미(一味)의 경지에 돌아가나 이 일미의 적(跡)을 떨쳐 없애 버려야 바야흐로 선가(禪家)의 일심법(一心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진(無盡)한 성해(性海)가 일미(一味)와 상합(相合)하는 것이요, 일미가 서로 없애져 버리는 것이 선(禪)이다." 이렇게 선과 교는 그 견해가 천지현역(天地懸隔)인 것이며, 조사선(祖師禪)의 경지에서는 일체화두(一切話頭)도 지월지(指

성철스님 격외법문 엉터리 해석과 비방 열도당도 않은 우김수

月指)이며 방(棒)과 할(喝)도 헛개비일 수 있는 것이니 허물며 씨의 여러 가지 황설수설한 것으로 보면 교가(敎家)의 황설선(知解禪)도 못되는 것이다. 큰스님의 이 법어야말로 함으로 오매 일여(寤寐一如)·사중득활(死中得活)의 몇몇 경지를 뒤집어 넘어서 살할(殺活)·명암(明暗)이 무애자재한 입장으로, 다시 말하여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무수무증(無修無證)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양심이 없고 큰 학자라던 자가 손발 수 없는 경지와 분야는 겸손하고 하심하여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점잖고 분수를 헤아리는 일인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일본의 대 불교학자 우이하쿠주(宇井伯壽)와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나카무라 하지메는 그의 저서 <동양인의 사유방법>이라는 책에서 선종(禪宗)의 화두(話頭)인 마삼근(麻三斤·삼사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자연현상은 모든 것이 절대이어서 부처님도 절대이고 마삼근도 절대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물었는데 마삼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단언을



종성스님

임제선원 원장

해버렸으나, 그 화두는 천만에 도 그런 식의 답변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스승 우이하쿠주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이것이 학자적인 양심이다. 자기는 안 깨쳤으니까, 자기는 문자승(文字僧)이니가 선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만 기록해서 선법문(禪法門)·선리(禪理)

에 대해서는 잘대로 말도 하지 않고 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 말하면 너무도 유명한 인도철학의 권위자요, 심지어는 여러 권의 선종사까지 쓰고 선도 많이 하여 선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자부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선에 입을 다문 것이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씨의 큰스님 격외법문에 대한 엉터리 해석과 비방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수작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이(宇井)씨의 학자다운 양심과 대가풍(大家風)에 존경하고 배우기 바란다.

아무리 행방하할(行榜下喝)이 아까우다 하더라도 씨는 또 두들겨 맞을 수밖

에 없다. 황백(黃檗)의 삼십삼방(三十棒) 아래서 입제(臨濟)가 나오고, 운문(雲門)은 진존속(陳尊宿)으로부터 더러가 부러지는 극한 경변을 당하는 참나에 대사(大事)를 일시(一時)에 확연히 밝혔었다. 씨를 위하여 이러한 고조(古祖)들의 위대한 득도담(得道談)까지 예시하기는 안할 말로 함으로 아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할 말이니, 이 두들겨 맞고 다리 부러진 소식을 씨는 함으로 배워야 한다.

그러면 선가(禪家)에서 실참실구(實參實究)의 공부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구경각(究竟覺)을 성취하는지 대략 말해보기로 한다. 첫째 동정일여(動靜一如)이다. 움직이나 고요하나 간에 간단(間斷)없이 성성(惺惺)한 마음주체가 흩어지지 아니하여 한결같은 경지가 공부의 첫 단계이다. 둘째 몽중일여(夢中一如)이다. 몽중(夢中)에도 마음이 일여(一如)하여 망실(忘失)되지 않는 경지이다. 대종장(大宗匠) 대혜(大慧)같은 이도 처음에는 이런 경지는 망설(妄說)이라 하여 믿지 않았으나, 후일에 다시 공부하여 기필코 성취한 것이다. 셋째, 숙면일여(熟眠一如)이다. 몽중일여(夢中一如)의 경지에서 진일보(進一步)하여 잠이 꼭 들어서 공시의 의식작용이나 꿈까지도 없어져버린 그곳에서 그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이 어디로 갔는가? 선문(禪門)에서 오매일여(寤寐一如)의 구경(究竟)이란 이 숙면일여(熟眠一如)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저앉지 않고서 다시 큰 관문인 사중득활(死中得活), 즉 크게 죽고 다시 크게 살아나서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수(修)할 것도 없고 증(證)할 것도 없는 자라리야 진실한 자기(自己)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는 것이다. 즉 영인히 무명(無明)을 끊고서 견성정각(見性正覺)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서야 조사스님의 화두(話頭)를 올바르게 투정투저(透頂透底)할 수 있고, 여기서 진정한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경지인 것이다.

부처님을 위시하여 초조(初祖) 달마(達磨), 육조(六祖) 내지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초군정안(超群正眼)들이 오매일여(寤寐一如)와 사중득활(死中得活)의 극심극한(極深極寒)한 관문을 투과(透過)하여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살불살조(殺佛殺祖) 무수무증(無修無證)의 자리를 철증(鐵證)하지 않은 이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말도 실참(實參)이 없는 한 쓸데없는 지해사구(知解死句)요 군더더기인 것이다. 지고극상(至高極深)한 선도리(禪道理)란 귀공남식(歸公南嶽) 양안(兩眼)만도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만 한다. 올바른 공부길을 알아서 방황하거나 씨처럼 망발을 일삼지 않는다는 것이 수오인(修道人)의 좌우명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여 세간에서 화려한 이름 석자 날리며 추앙받고, 재주 기운과 언어문자의 사구(死句)에 의지하여 알음알이를 일으키는 그런 씨의 야상(我相)을 가지고는 천 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만고에 분명한 자기(自己)의 본면목(本面目)을 깨달을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큰스님의 법문(法門)을 대하면 지해(知解)로써 이리저리 시비(是非)를 일으켜 자신의 취향이나 무슨 요즈음의 시대정신을 맞지 않는 다하여 엉뚱한 잡교대를 일삼지 말 것이다.

씨의 바로 본분(本分)자리에서 의정(疑情)과 분심(奮心)을 일으켜 지해사랑(知解思量分別)을 떠난 활구(活句)를 들고 나갈 때만이 그 낙처(落處)를 바로 아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씨 밖에 있는 겉대기 불교를 가지고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그 시끄럽게 외치기 전에 바로 씨의 마음자리에서 눈을 떠버리려면 저절로 한 물건도 볼 것이 없는 참불교를 보게 될 것이다.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상용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진사용
- 모델 A: ₩3,800,000 B: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 왕토마을에서는
1. 황토 주택 도구시공
2. 도구 현장 출장감독
3.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 전화: 0671)634-0223
- 팩스: 0671)34-1237
- 봉송항토마을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작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똥보다 더 쓰더라니까"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매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5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여래선(위빠사나) 수련 안내
위빠사나를 익힌다는 것은 내기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확실한 자신을 탐구하는 수행이다.
위빠사나는 간단명료한 수행입니다. 순간순간 고요하고 명료한 깨달음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진해를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마음의 평정과 평화로 인생의 모든 모습을 관조한다면, 기쁨과 고통, 두려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존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확실히 관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일 수행 계획표는 좌선과 행선으로 이루어지며, 법문과 지도스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참석자들은 침묵과 수행 내용에 충실하게 따를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4박5일 수련
- 기간: 2000년 3월 7일(화요일, 오후3시) - 11일(토요일, 오후3시까지)
- 동참금: 60,000원
- 6박7일 수련
- 기간: 2000년 3월 12일(일요일, 오후3시) - 18일(토요일, 오후3시까지)
- 동참금: 100,000원
- 지도스님: 붓다맛키타 스님
- ◆간화선(화두선) 수련 안내◆
- 기간: 4박 5일 - 2000. 3. 22(수요일 오후 3시) ~ 3. 26(일요일 오후 3시)
- 동참금: 60,000원
- 지도법사: 운산
- 장소: 봉인사 자광전
- 준비물: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담마를 체험하겠다는 서원
- 보공도 참배하고 부처님 수행도 하십시오.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번지
- 문의전화: (0346)574-5585 FAX: (0346)574-0808
-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